



하얗게 눈 내린 사랑밭 앞마당 전경

어느덧 사랑밭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숨어있는 사랑밭의 모습,
동심으로 돌아간 사랑밭 식구들이 만든 눈사람은
그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듯합니다.

2022. 하반기 사랑밭 소식지



사회복지
법인
景山복지재단
KYUNG SAN WELFARE FOUNDATION

사랑밭

사랑밭 소개	02	자립준비 인터뷰&수기	05	취업 소식	09	후원현황	22
자립지원부 이야기	03	교육·취업지원부 이야기	07	독립취업회원 수기	09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23



2023년 계묘년 맞이 시무식- 반석산을 등반하며...

사랑발은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입니다.

비전

VISION

사회인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MISSION

미션

정신장애인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합니다.



사랑발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의 지역사회 자립 및 회복을 위하여
주거지 제공 및 지역사회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재활 종합시설입니다.

자립지원부

자립생활촉진지원사업

- 신입회원지원(멘토링, 환영회)
- 자립회원 초청회
- 유관기관 및 가정방문
- '파인홈을 꿈꾸는 사람들'(파꿈사)
- 퇴소(예정)자 지원

건강지원사업

- 신체건강활동
(요가, 탁구, 족구, 등산, 걷기운동,
자전거 라이딩)
- 건강관리교육
(건강검진, 신체건강관리교육,
정신건강교육 WSM)

문화·여가·사회참여지원사업

- 자조모임
- 문화·여가활동지원
- 특별행사(명절, MT 등)
- 지역사회 조직화 및 참여

자립지원부는 동료지원을 통해 사랑밭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홀로서기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김 O 자립 준비를 하기 위해 입소했는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서 O 용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잘 따라가다 보니 움직이니 부지런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습니다.

유 O 석 사랑밭에 와서 규칙 잘 지키고 지내면서 건강하게 자립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세요!

주 O 택 오자마자 우 O 민 씨가 멘토로 도와주셨는데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받은 만큼 도와주고 싶어요.

신 O 식 안녕하세요. 저는 온 지 2달 됐는데, 있는 동안 잘 지내고 남은 기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점 배우고 취미
활동으로 커피도 내리며 즐겁게 지내고 싶어요.

박 O 진 여기서 오자마자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됐었는데, 힘든 시간 지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김 O 엽 저는 독립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자립지원부 이야기

날은 춥지만 마음속에 따뜻하게 쌓인 추억, 하반기 MT

- 우 O 민 회원 -

하반기에 사랑밭에서는 에버랜드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활동을 잘하지 못했었는데, 완화되어 다 같이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나가서 많은 사람과 함께 놀러 가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놀러 갈 때 신으려고 준비해두었던 새 신발도 신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떠났습니다. 그곳에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타보고는 싶었지만 무서워서 고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동료분이 함께 타자고 하여 용기 내서 도전했고 재밌게 타고 오니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짜릿하고 즐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놀이기구도 많이 타고 햄버거도 맛있게 먹고 저녁에는 다 같이 식당에 가서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덕분에 많은 사람과 얘기할 수 있었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스트레스도 실컷 풀고 온 날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때 같이 못 갔던 분들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가고 싶습니다.



▲ 뺄놓을 수 없는 단체사진, 에버랜드 매직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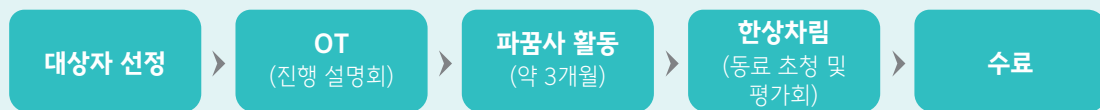
▲ 에버랜드 200% 즐기기, 놀이기구 타고 한 컷!

파 꿈 사

'파인 홈(fine home)을 꿈꾸는 사람들'의 줄임말로, 자립생활촉진지원사업 내의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직접 요리도 해보고, 자립하게 된다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가게를 방문해서 직접 이용해보고, 체험홈에 방문하여 집을 어떻게 꾸미고 관리해야 할지 등 자립에 필요한 활동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행과정



자립지원부 이야기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다, 파꿈사&자립회원 초청회

- 홍○형 회원 -

저는 하반기에 파꿈사를 수료한 홍○형입니다. 제 목표는 자립해서 혼자 잘 사는 것입니다. 입소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대학생 때 혼자 살아본 경험도 있지만 지금 와서 혼자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파꿈사입니다. 처음엔 요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고, 설명을 듣고나니 자립하는 기술도 익히면서 같이하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참여했습니다.

저는 집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긴 시간이 들어가는 활동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요리 활동은 특히 더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칼을 다루는 것도 무서웠고 요리를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배우며 이제는 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요리를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늘었습니다. 칼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도 배웠고, 요리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한상차림이라고 하여 동료를 초대하고 식사를 대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던 분께 마음도 전하고 직접 음식도 대접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파꿈사를 수료한 후엔 자립회원 초청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 참여 중인데, 이번에는 자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듣다 보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희망샘에서 오신 분 중 동료지원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이 계셨는데,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움도 받을 수 있고, 관심이 있다면 동료지원가가 되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듣다보니 퇴소하게 되면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자립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과 자유질문 시간도 가졌습니다. 편한 자리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었던 자리가 좋았습니다.

같이 참여했던 어느 동료분은 “저분들을 보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깨달음도 얻었다고 합니다. 저도 제 목표를 위해 준비하고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파꿈사 - 한상차림을 위한 재료 손질



▲ 자립회원 초청회 참여 모습

자취 한걸음 인터뷰

사랑밭에 적응하고 퇴소를 준비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

- 김○형 회원 -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밭에 2020년 6월에 입소하여 2년 반 정도 생활하고 있는 30살 김○형입니다.

Q 입소하신 후 적응하는 데 많은 힘을 쏟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요?

A 저는 처음에 이곳에 올 때 취업도 된다고 하여 이를 목표로 삼아 들어오게 되었고, 1년 정도 복지 카드를 기다리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다린 뒤 취업했고, 잘 할 수 있을까란 생각과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으나,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1년 반 정도 취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Q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A 우여곡절 끝에 기다리던 독립이 코앞에 다가와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청년 매입임대 주택에 신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Q 대단하네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요?

A 물론 처음부터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당사자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저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못 할 게 없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과정엔 수많은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바뀌고자 하는 게 없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족들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지, 정신질환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나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Q 마음먹기도 중요하지만 쉽진 않았을텐데,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포기하려는 찰나도 생깁니다. 그럴 때 주변을 한 번 둘러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도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 품 안도 따스하고 좋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독립에도 성공한다면 그 기분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꿈꾸며 “나도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준 사랑밭에도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A 최근에는 마중 사업의 일환으로 자립체험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홀로 한 달 정도 살아보는 프로그램인데, 실제 지역사회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스로 생활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막상 살아보니 잘할 수 있었고, 나만의 삶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사랑밭에서도 찾아와서 도움을 주셨지만, 직접 해보니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더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시도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

자취 한걸음 일기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 처럼... 체험홈 첫날...

- 박○범 회원 -

더 중요한 것을 하는데 좀 잊지 않으면 어때... 남들과 같이 매일 씻고 분주하게 넥타이 매고 정장 차림으로 새벽부터 부대원이 되어 부지런히 두 눈 번득이며 무엇인가를 향해 분주히 뛰어다녀야 하나...?

집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이쁜 모습을 보고 꼭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방법과 아이가 성장해가는 그 순간순간을 함께하며 지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따지고 보면 다 중요한 것 같다... 정신병, 정확히는 조현병에 걸려 많은 위험을 겪고 많은 대가를 치르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씻고, 청소하고, 운동하고, 담배와 커피를 줄이고 남들과 같이 건강을 생각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 먹고, 하기 싫어도 다른 이들과 처럼 씻고 그 상쾌함을 느끼고 주거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월급날이면 다 함께 기뻐해 순댓국이라도 나누고...

체험홈에 왔다... 전날 짐을 싸놓고 고맙게도 동료들이 짐을 차까지 가져다주고, 강팀장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말로만 듣던 체험홈이란 곳에 짐을 가져다 놔다.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날까?', '사랑밭에서는 여러분이 깨워 주셨는데 내게 있는 것은 전화기와 자명종 두 개...', '차는 어디서 타야 하지...?', '교통편은 어떻게 되지...?' 센터에서 오셨다는 분이 여러 가지 설명해주시는데 나는 나대로 걱정거리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다.

이제부터 다른 이들과 처럼 아침 6시면 일어나 대충 물 한잔이라도 먹고 씻고 옷을 입고 문형이를 깨우고... 다행히 쌀이랑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노선도는 강채화 선생님이 뽑아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고, 사실은 센터에서 오신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는 식생활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리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당장 내일 출근이 걱정인데... 이제 몇 시간이면 잠자리에 들 것이고 이내 아침이 다가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센터에서 오신 선생님과 강팀장님과 문형이와 마트에 가게 됐다. 앞으로 2주 동안 먹을 식재료를 사라는 것이다. 그냥 때 되면 해주시는 밥을 먹다 뜬금없이 2주 동안이나 음식을 해야 하고 그것을 만들 식재료를 고른다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

간단히 먹을, 유통기간이 긴 재료 위주로 고르고 반찬 가게를 갔다. '여기 마음에 드는 것이 있네...' 오징어 젓갈, 창란젓갈, 명란젓갈, 한 가지만 있어도 끼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어 몇 가지를 고르고 집에 와서 재할용 쓰레기랑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버스를 아파트 가까이서 탈 수 있는 곳을 알고 나니 그나마 복잡했던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사실 '다른 이들과 다르게 나는 내 개성대로 살고야...'라는 고집은 지난 20여 년 병원 생활과 시설 생활하면서 많이 바뀌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과 같이 한다는 말은 별종나게도 특별할 것이 없이 그것은 그냥 삶에서의 기본적이라는 깨달음. 그곳에 내 개성 어찌고는 다소 일상적인 일에 오버액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마중물이란, 펌프가 말라서 물을 길어 올리지 못할 때 한 바가지 붓는 물인데 그 일상에서의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내게는 마중물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함께 가는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중물이지 않을까라는...



▲자립체험홈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한 장 보기



▲동료와 함께 오랜만에 볼링~ 재미있는 취미생활까지!

교육취업지원부

고용 및 직업재활지원사업

- 취업장 방문 및 견학
- 취업 전 교육
- 취업자 자조모임
- 취업자 캠프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민간위탁사업

교육지원사업

- 기타교육지원
- 의무교육
- 당사자 강의

가족지원사업

- 가족교육
- 가족모임
- 가족 만족도 및 욕구조사

교육취업지원부는 각종 의무교육, 기타 교육과 더불어 취업 준비 및 유지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취업 지원부 이야기

자신 있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나의 목소리, 스피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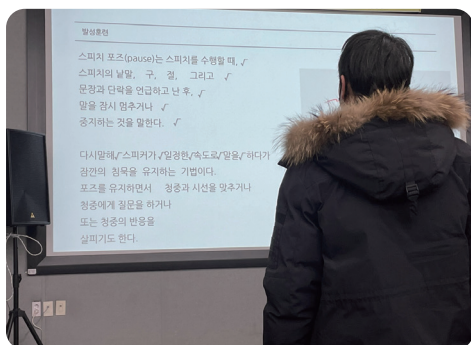
- 박○영 회원 -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교육은 스피치 교육이라는 것인데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말을 할 줄 아는데 이런 걸 왜 배워야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번의 교육 동안 저는 이 생각이 완전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많이 해 본 사람이 잘한다는 것처럼 저는 말을 많이 할 기회가 없었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신경도 안썼습니다. 그러나 교육에서는 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고, 어떤 호흡을 해야하고, 어떤 자세에서 말을 해야 더 전달하기 쉬운지 등 사소한 것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항상 작게 말하고 조금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속에 쌓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소리로 질러보고 하면서 점차 제가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도 배우고 발성 연습도 하고 어려운 문장도 읽어보며 언어구사 능력도 길렀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소심하던 제가 활달해지고 용기도 생기는 게 신기했습니다.

비록 4번밖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제가 많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고, 지금은 교육에 참여하길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하게 해 주어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 스피치 포즈(Pause) 기법 연습하기



▲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기 위한 발표연습

교육취업 지원부 이야기

겨울철 호빵 같은 따스함이 느껴진 하루, 나를 응원해준 가족, 송년회 - 박○진 회원 -

12월 21일, 송년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송년회 자리의 사회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너무 떨리고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는 데까지 여러 번의 연습이 있었고 리허설도 해봤습니다.

우선 끝나고 난 소감부터 말하자면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시작 전엔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도 잘 안 나왔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엄청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얼마 안 가 사라졌습니다. 사랑받을 찾아와 송년회에 함께 해준 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니 너무 좋았고 응원도 받으니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긴장도 풀렸습니다. 진행하면서 본 송년회의 분위기는 너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비록 몸은 시설에 있지만 다른 가족분들도 함께 하는 연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도란도란 모여 다 같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던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년회를 하던 날 동생하고 사랑받을 걸던 때가 생각납니다. 빙판이 있어서 넘어졌었는데, 부끄러워서 안 아픈 척 했습니다. 같이 가던 동생이 조심하라며 얘기해주고 함께 하하호호 웃던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비록 다음날 넘어진 곳이 아프긴 했지만, 아플 때마다 그때 동생과 얘기하며 짧게 걸던 때가 떠올라서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가족들과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여유로워야겠지만 제게 많은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자주 보고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다들 행복한 연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2022년 송년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적복적!!



▲ 가족과 두 손 꼭 잡고 이야기보따리 봉인 해주세요~

가족지원 사업

회원의 정신과적 증상 이해,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가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함께 참여하여 회원과 가족의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밭에서는 여러분들이 더욱 편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가족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통한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및 환경, 가족교육 등 사업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만족도 및
욕구조사
(연 1회)

가족교육 및
모임
(연 4회)

가족과 함께하는
송년회

가족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및 환경 개선

2022년에는 송년회를 비롯하여 가족 간의 의사소통방법,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관련 법,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과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사랑발 취업소식

취업종결

신○순, 김○윤, 송○수, 이○향,
홍○영, 이○선, 송○석, 김○훈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올해의 신규취업자

07월 : 홍○영 (취업 후 퇴소)
08월 : 김○윤, 정○수
09월 : 정○원, 최 ○
10월 : -
11월 : 김○준

사랑발과 함께하는 취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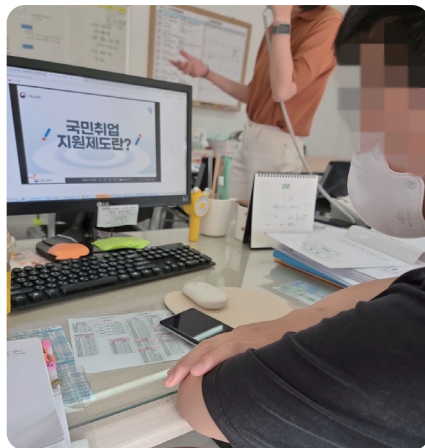
취업장 : 8곳

한국사회적일자리개발원(ICT),
어울림에프, 오산한국병원,
삼신상사, 맛정, 우리F&F,
수원여자대학교, 코닉오토메이션

취업 이야기

내 인생 레이스는 아직 다져지지 않은 오프로드 위 - 회원 김○준의 독립취업 성공기 -

전국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및 의사 선생님, 저와 같은 당사자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신재활시설 사랑발에 지내고 있는 28살 김○준이라고 합니다. 2월에 입소했을 때부터 취업에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정말 내세울 스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검정고시 고졸일 뿐이어서 처음 6개월 동안은 막연하게 그저 사랑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저는 자존감이 한없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았기에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했 습니다. 그러던 중 면담을 자주 하던 사랑발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 국민취업 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교육중!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준비된 게 없으니 취업은 무리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작정 신청해봤고, 그렇게 해보자는 마음 하나만으로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시작하게 된 게 8월이었습니다.

8월에는 앞으로 몇 달간 해볼 건지, 지원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달마다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9월에는 단체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10월에는 일 경험 프로그램 찾기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그런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걸 찾아보았는데 찾다 보니 스펙이 많이 낮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좌절하여 담당자분께 “못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은 “당장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할만한 곳을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요.”라며 가이드를 잡아주셨고 결국은 할만한 곳을 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10월을 보내고, 11월에는 자기소개서라는 걸 써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쓰다 보니 저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도와주시던 분들과 여러 번 검토하여 다시 써보았고, 완성한 자기소개서로 3개월간 직업 체험을 할 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영화관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처음 보던 면접이 긴장됐던 탓인지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담당자분께 어느 푸드 업체를 소개받아 지원하게 되었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으니 힘들 것 같고 퇴근 시간도 8시라 늦는 등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사랑발에서 괜찮다고 얘기해주셨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잘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취업 박람회에 참여하여 알아보기

일하기 시작하던 처음에는 가족들이 “힘들진 않냐”, “다른 거 있을 텐데 왜 굳이 그걸...”이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화도 조금 났습니다. 그러나 가족들한테 “어느 누가 잘 정돈된 시멘트 도로를 두고 위험한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싶어할까, 하지만 목적지로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밖에 없다면 달려야 한다. 가족이라면 이럴 때 할 수 있다고 격려나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이야기하였고 지금도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일하면서도 힘든 게 없는지 묻는다면 당연히 없다고 대답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심사숙고 하고 선택한 나의 길이기에 후회도 없고 포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한마디를 하고 싶다면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절망하는 일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대로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레이스를 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찾아오기 마련이니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넘기면 그 길 끝엔 반드시 행복이 오리라고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좌절하더라도 절망을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아직 저는 아무것도 이룩한 것 없는 어린 28살이지만,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먹은 대로 올곧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다닌 처음 3일 동안은 일하는데 힘들어서 혁혁 거러기도 하고, 11월인데도 땀이 비 오듯 흘리기도 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일이 지나고 또 1주일이지나니 일이 할만하고 적응이 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발에 올 때부터 세워두었던 두 가지 목표 중 하나인 취업에 달성했고, 두 번째 목표인 자립을 위해 적금을 넣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 내가 하고싶은 일은 어디에 있는지 탐색하기



2022. 하반기 희망샘 소식지

겨울 그림·글 이○재 회원

한 시간이 한세월이 된다 여러 눈송이가 겨울이 되듯
우리의 겨울이 간다. 뽀송한 겨울이 되길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겨울은 우리에게 웃음이 된다.
두 걸음 두둑한 겨울이 된다.



희망샘 MT '우리들만의 남이섬 추억 만들기'	13	우쿨렐레 악기를 배우며	17
아트프리마켓 '우리의 작품이 굿즈가 되다'	13	동료 지원활동가 수료식을 마치며...	17
화성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14	희망샘 'Job Story'	18
클럽하우스 실천 운영	15	나의 첫 독립생활	19
(송국 클럽하우스 1주 훈련, 태화 샘솟는 집 2주 훈련)		2022년 '자주빛'(자주적으로 빛나는 우리) 송년회	20
희망샘 가족 야유회	16	나도 작가	21
2040세대별 모임을 마무리하며...	16		

CLUBHOUSE HEEMANGSAEM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_희망샘



희망샘은 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입니다.

희망샘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 회원의 회복 과정을 돕기 위한 회원지원
-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클럽하우스 활동
- 회원의 재능 발휘 및 정서 안정을 위한 예술 활동
- 회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자조모임
- 취업 준비 및 유지를 위한 취업지원
- 지역사회 연계활동, 기관 안내, 정신장애 인식개선 후원 및 홍보사업

클럽하우스란?

클럽하우스는 “지금 그리고 여기(Here and Now)” 정신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에서는 회원으로서 자발적으로 클럽 하우스 운영에 직원과 함께 참여하며 책임과 의무를 공유합니다. 클럽하우스는 “환영받는 곳”, “일”, “친구”가 필요하는 내용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자존감, 소속감을 회복하고 참여 및 기여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희망샘 MT

‘우리들만의 남이섬 추억 만들기’

- 글 희망샘 회원 -

- 조별로 업무를 분장해서 장점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좋은 경험이었다.
- 남이섬에서 스토리 투어버스로 남이섬을 둘러보았는데 흥미진진했다. 조원들과 함께하고 조별로 이동해서 좋았다. 다음에도 조별로 MT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 과거에는 어린아이처럼 직원들을 따라다녔다. 이번 MT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들 간 서로 이해하고, 의지하고 직업의식처럼 책임감도 생겼다.
- 기대 이상 좋았던 MT였다. 당일 할 수 있는 MT로 힘들지 않았고 편하게 소규모로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많은 인원이 함께 움직이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았고, 조장으로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 다음에도 조별로 MT를 진행하면 좋겠다.
- 총무 업무를 담당해서 책임감이 막중해서인지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신중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으로 편하게 이동해서 좋았다. 다음에도 조별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아트 프리마켓

‘우리의 작품이 굿즈가 되다’

- 글 희망샘 회원 -

- 저희가 직접 만든 도예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우리가 만든 작품이 아닌, 그냥 판매를 위한 물품으로만 보여서 신기했어요.
- 이번 바자회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기면서 하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 바자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 부스를 다 돌아다녀 봤어요. 돌아다니면서 저는 저희 부스가 가장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 직접 만든 화분에 다육식물을 심고, 판매할 수 있어서 보람찼어요.
- 바자회에 희망샘 회원분들이 같이 진행도 하고, 놀러도 많이 와주셔서 더 재미있게 바자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성시 사회복지 박람회 희망샘 부스 운영

일시 : 2022. 9. 17.(토) 7:30~15:30

장소 : 동탄 센트럴파크

내용 : 편견 해소 및 인식개선, 정신장애 바로 알기 '현(絃을) 조율하다', 아르튀르 작품 전시

- 글 희망샘 회원 -

센트럴파크에서 진행된 '화성시 사회복지 박람회'에서 참여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활동으로 희망샘 부스를 운영하였다. 백여 명이 훨씬 넘는 지역 주민들께서 부스 활동에 참여해 주셨고 희망샘에 관심을 보여주셨다.

활동 참여 후 주민들은 “조현병 가진 사람들은 무섭고 일상생활도 잘 못하니까 병원에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오늘 직접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직접 만든 도자기와 그림을 설명해 주고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잘못 알고 있구나 생각했다”, “평소에 조현병 환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뉴스나 보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랑 지금 여기에 있는 조현병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구나 생각했다.”, “조현병과 지적장애가 같은 장애인 줄 알았는데 다른 점을 알게 되었다.”, “조현병이 있어도 직장 다니고 혼자 살고 있다는데 놀랐고 잘 못 알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소감을 말해주시며 “조현병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다. 앞으로 잘 살아가길 응원한다. 파이팅!”이라며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다.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에 일조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클럽하우스 실천운영

클럽하우스 1주 훈련

기간 : 2022. 6. 27.(월)~7. 1.(금)

장소 : 송국클럽하우스

- 글 이○재 회원 -

송국 클럽하우스 연수를 통하여 클럽하우스의 문화를 실제로 경험하고, 일중심의 일과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기회가 되었다. 디지털드로잉 및 유튜브를 활용한 TV 스트리밍 등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각 회원의 재능과 강점을 살린 사업 구성이 인상 깊었다. 훈련을 통해 수립한 액션플랜을 적용하여 희망샘의 클럽하우스 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클럽하우스 2주 훈련

기간 : 2022. 9. 19.(월)~9. 30.(금)

장소 : 태화샘솟는집

- 글 이○철 회원 -

태화샘솟는집을 클럽하우스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다. 나에겐 익숙한 이름이었으나 가본 적은 없었고 예전 서울을 탐방했을 때 스쳐 지나간 곳이었다. 클럽하우스에서 바쁜 스케줄을 회원들이 따라갈 정도로 여유로움이 있었다. 그중에서 회원들과 직원이 함께 한 달에 1~2번 나들이 가는 것이 참 좋았다. 희망샘의 교통편이 아쉽다고 느꼈으며 우리 희망샘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클럽하우스를 나아가는데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되고 액션플랜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시간상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중에서도 잘 추려서 희망샘 클럽하우스에 발전이 있길 바란다.



희망샘 가족 야유회

일시 : 2022. 10. 27.(목) 10:00~17:00

장소 : 남한산성

- 글 김성남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 22년도 희망샘 가족모임(1~4분기)에 전체 평가를 진행함. 가족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 동료들 만날 수 있었고, 각기 어려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다고 함. 그 이외 가족힐링프로그램(무드 등 만들기) 및 가족 야유회(남한산성 등반)등 다양한 콘텐츠로 가족 모임이 진행되어 흥미가 매우 높았다는 평가가 다수였음. 평가 이후 가족 건강성 척도 및 가족부담 척도 설문을 진행함.
- 23년 가족 모임에 대한 특별한 욕구는 없으나, 희망샘 내 신규회원의 증가로 신규 가족모임 일원의 추가와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추후 반영하고자 함.



- 글 희망샘 회원 -

2040 세대별 모임을 마무리하며

...

- 2040세대별 모임 때 외부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해서 좋았어요. 다양한 경험을 자랑 비슷한 세대의 회원분들이랑 함께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모임이 자주 있으면 좋겠어요.
- 다양한 활동들, 혹은 저의 세대와 맞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단합이 될 수 있었고, 제 삶에서 즐거움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아 행복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모임이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 2040세대별 모임에 참여를 많이 하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롤러스케이트장, 실내낚시터, 연극관람 등 2040세대별 모임을 통해 다양한 경험, 희망샘 회원과 직원과 뜻깊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어요. 앞으로도 2040세대별 모임이 활성화되고 2040세대에 맞는 직원과 회원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우쿨렐레 악기를 배우며

- 희망하모니아 글 희망샘 회원 -

- 악기를 처음 접하면서 곡을 연주하고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연습을 꾸준히 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쿨렐레로 잘 해내고 싶습니다.
- 강사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음악에 대한 세계를 조금이나마 알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강사님을 모시고 병아리 수준으로 우쿨렐레 악기 배우기를 출발했다. 통기타를 배웠을 때가 20여 년이 지나서 그런지 우쿨렐레는 생소했다. 옛날의 기억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아직은 어려운 코드도 모르고 타브만 하고 있다.



동료지원 활동가 수료식을 마치며...

일시 : 2022. 4. 22.~12. 2.(이론 70시간, 실습 30시간)

장소 : 화성시정신건강센터 봉담분소

내용 : 2022년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 글 한○은 회원 -

- 화성시 봉담센터에서 시작된 동료지원가 양성 교육을 제가 하고 싶은 일로 책임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차차 적응하면서 함께 교육받는 회원들과 같이 함께해서 서로 의지도 되고 서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정말 집중하며 강의를 들었던 생각이 나고 책으로도 배우고 정신보건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체계가 준비되었던 점이 너무 좋고 또 공부하는 시간에는 마음의 안정을 취하며 취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면 멋진 동료지원가가 될 것입니다.

- 글 이○철 회원 -

- 동료지원가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을 때가 1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에 송파동료지원가 양성교육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 교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생소했고 처음 듣는 느낌은 아니나 인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다들 각자의 사연들을 가졌다는 게 동료지원가의 색다른 점이었습니다. 당사자의 경험을 공감할 줄 알고, 그걸 배워나가면서 나의 경험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나긴 교육을 끝내보니 바쁘게 돌아갔지만 할 것과 배울 것이 아직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사자 중심으로 실습하면서 당사자의 상태를 먼저 물어보고 당사자의 마음까지도 읽어내고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욕구에 따라 활동 및 면담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해 당사자의 상태가 제일 직결된 문제다 보니 당사자가 약물관리 및 병식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짧았으면서도 길었던 실습을 하며 무난하게 끝을 낸 것에 당사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더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글 배○환 회원 -

- 동료 활동 지원가가 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하나 헤쳐 나가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빨리 끝났으면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이것도 수료 못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이 나의 추진력이 되었다. 동료지원가의 과정에서 수료 된 기분은 흥가분했고 지금도 편안하다. 동료지원가가 된 기분과 소감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으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된 것이라고 배웠다.



희망샘 'Job Story'

- 취업자 글 이○희 회원 -

안녕하세요!!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참여형 일자리를 하고있는 회원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적응한다는게 쉽지 않았는데 손님들과 소통하고 참여형 직원분들과 소통하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들 다른 취업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과 고생하셨을 겁니다. 옆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가족들과 희망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2023년에도 클럽하우스 희망샘의 취업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느 위치와 자리에 있던지 취업자 희망샘을 빛내주신 회원들에게 꽃봉오리가 활짝 피우듯 새로운 봄날 같은 2023년을 기대합니다.

희망샘 'Job Story'

취업장	업무내용	취업 형태
ICT사업단	컴퓨터 조립 및 검열	지지취업
J2컴퍼니	플레이콘 포장업무	
MK산업	세탁업무	
나래울 종합사회복지관	나래울도서관 사서 업무 보조, 노래방 접수 및 안내, 탁구장 환경정리	
동탄아르딴복지관	럭키스토어 매장운영, 안내 방역관리, 당구장 운영, 탁구장 운영, 노래방 운영, 헬스장 운영, 보호작업장 업무	
어울림F	쇼핑백 제작	
용인정신병원	매점 운영 및 관리	
수원여자대학교	사무보조	독립취업
동탄2동행정복지센터	안내업무, 안내 방역관리	
박사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	

- ▶ 취업자 : 총 22명(22년 11월 기준)
- ▶ 취업 종료자(7월-11월) : 3명(퇴사자)
- ▶ 신규취업자(7월-11월) : 4명
- ▶ 취업률 : 44%(총인원 50명 중 22명 취업)
- ▶ 신규취업장(7월-11월) : 1곳

나의 첫 독립생활

- 글 임O경 회원 -

저는 2022년 7월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면서, LH 임대아파트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독립자금도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 선생님과 오빠와 언니도 살림살이를 마련하는데 하나하나씩 도와주셨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동안 요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취업 활동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잘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나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희망샘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표는 아파트에서 독립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독립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송년회

‘자주빛’(자주적으로 빛나는 우리) 송년회

- 글 황○남 회원 -

매번 송년회가 진행될 때마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 송년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다. 준비하는 과정에 회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각자 역할이 있어 함께라는 느낌과 인정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 가슴에 와닿았고 뿌듯했다. 희망샘을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더 들었던 거 같다. 초청공연과 더불어 외부에서 진행하니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송년회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합창을 해서 단합이 잘되어 활기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들어주고 경청하고 관심을 가져주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 시간이 짧았지만 짜임새가 좋았다. 이번 송년회는 상○씨와 소○씨가 사회를 잘 봐서 더 뜻깊었다. 내년 송년회에는 나도 사회를 보는 것에 도전해 보고 싶다. 역할이 많지 않았던 회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진행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보고를 길게 하기보다는 회원들의 일상이 담긴 영상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작가

감사

- 문예반 시(詩) 이○재 회원 -

감사는 나에게로 돌아오는 길이다

언제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꿈은 그림자가 되어 있었다.

감사를 알고 나를 알고

감사를 줄 수 있게 준비되어라

인간은 아낌없이 주신다

난 그저 하시는 것을 우두커니 본다

인간과 감사를 나누는 것은

얼마나 총만하고 행복한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며

마음의 감사를 전하도록

노력해 본다

하느님께 은총을 축복을

나는 감사하고 나누며 살리라

별이 있는 하늘

- 문예반 시(詩) 임○서 회원 -

새벽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반짝 춤을 춘다.

어두운 하늘에 구름 한쪽 흘러간다.

날이 밝은 어느 날 공터에서 자치기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텅 빈 내 가슴을 무섭게도 들여다본다

컴컴한 밤이 다시 오고 별이 있는 하늘이 없어서

너와 내가 외롭지 않았던가.

사랑밭 후원금 현황

CMS, 온라인 후원

강*혁	김*희	김*섭	박*숙	안*순	윤*휘	이*우	전*애	차*빈	한국전기안전공사(경기지역본부)
강*영	김*혁	김*수	박*나	안*자	윤*현	이*민	전 *	차*영	국민은행(동탄다은지점)
강*구	김*복	나*화	박*열	안*진	윤*빈	이*분	정*열	최*주	디자인큐브
강*언	김*란	남*분	배*영	양*준	윤*현	이*분	정*수	최*명	화성시복지정책과
강*영	김*대	노*한	백*슬	양*혁	이*현	이*죽	정*덕	최*화	화성시장애인복지과
견*림	김*운	민*기	류*홍	오*혜	이*만	임*아	정*혁	최*옥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고*아	김*기	박*경	서*음	오*호	이*희	임*희	정*원	한*숙	원천침례교회
공*영	김*숙	박*천	송*식	우*학	이*희	임*진	조*숙	한*희	희망샘
기*우	김*강	박*호	안*은	유*상	이*열	장*원	조*자	한*심	네이버해피빈
기*안	김*묵	박*범	안*선	윤*술	이*옥	장*현	조*호	홍*훈	

모금함 후원 동탄농협, 동탄 하나로마트, 원조설악추어탕 동탄점

2022년 후원금 수입 · 지출 내역

수 입			지 출		
지정후원	직원복지	550,000	지정후원	직원복지(직원포상 등)	191,600
	프로그램지정 등	5,540,000		자산취득비	5,658,000
	네이버해피빈	678,000		기타(수용비 등)	72,900
	공모사업	28,669,350		공모사업	25,139,420
비지정후원	정기(CMS&온라인)	18,650,260	비지정후원	인건비	584,430
	비정기(1회)	4,414,000		자산취득비	2,064,070
	기타(모금함 등)	42,620		프로그램비	2,686,300
	기타이자수입	39,325		기타(수용비 등)	1,499,982
	전년도 이월금	44,686,359		차기 이월금	65,373,212
	수입 합계	58,583,555		지출 합계	37,896,702

사랑밭 후원 현황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식빵80봉
-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더함 65인치 퀀텀닷 UA651QLED 안드로이드 스마트 TV 1대, 케라시스(린스) 1박스, 리앙뜨(린스) 1박스, 순샘(주방세제) 3개, 사철쭉(바디워시) 1개, 데오도란트(로즈, 베이비) 2박스, 마스크 필터 1박스, 홈백신 욕실 세정제 1박스, 더마모어(샴푸) 5개, 월별치솔 (소포장) 22개, 에스까다(향수) 17개, AGE20 팩트 1박스, 화장품 3중세트 11개, 캘빈 클라인향수 1박스, 올리브 바디워시 4개, 말랑카우 핸드워시 1박스, 탈취탄 4개
- 화성시 도시건설위원회 쌀 10kg 15포
- 삼성(사랑의 열매) 쌀 외 3종 5박스
- 강 승 희 요 리 학 원 단팥빵 100개
- ㈜ 대 경 상 사 라텍스 위생장갑(100개입) 100박스
- 사 랑 의 교 회 굴5kg 4박스
- 주 다 산 교 회 성탄박스 15박스
- 이성당 빵 9박스
- 박*정 키위 3kg
- 문*경 굴5kg 3박스, 굴10kg 1박스, 천혜향10kg 1박스, 청도반시 1박스, 양말 90개
- 이*구 굴5kg 1박스
- 김*태 굴3.2kg 4박스

후원안내

우리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겨운 생활을 하는 이웃의 마음에 큰 희망을 담아드리고자 희망씨앗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변화된 미래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금후원



CMS 정기후원, 일시후원

모금함후원



사업장에 비치된
모금함 후원

물품후원



도서, 컴퓨터, 생필품
등 후원

지역단체 마일리지



이마트 동탄점 구매영수증을
지역단체 마일리지로 전환

CMS 자동 출금 서비스

- 후원 신청자 계좌에서 매달 자동출금 됩니다.
- CMS 후원을 원하시면 사랑밭으로 연락바랍니다.
(후원금 CMS는 금융결제원 CMS 이용 약관에 준합니다.)

일시후원 (온라인 후원)

- 국민은행 588901-04-011431
 - 신한은행 100-025-75549
 - 우 체 국 107842-01-00721
 - 기업은행 547-017009-01-013
- 예금주 : 사랑밭

자원봉사자 안내



사랑밭 홈페이지
(www.sarangbat.or.kr)
▶ 자료실 ▶ 자원봉사 신청



운영지원팀(031)376-5690
문의 및 기관방문

※ 자원봉사 활동은 사랑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삼성 아파봉 봉사단과 함께하는 '마음여기' 중 타일 공예 작품